

참된교회와 주일학교

(발제자: 유병수목사/사랑샘교회)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인간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가르치는 일로,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는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복음전파의 가장 큰 사명으로 교회는 말씀을 설교하는 일을 삼았는데, 그 목적은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제하며,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과제가 교회에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교육적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 부여하신 일이고, 그의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실천한 일이며,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야 가야 할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러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교육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와 함께 나란히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신앙의 학습과정을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교육사역은 기존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하는 양육과 훈련이라는 신앙의 재교육 프로그램과 특별히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도록 하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적 행위를 총괄하는 ‘교회교육학’이론이 더욱 이론화 되고 체계화 되고 있다. 1)

그리고 이러한 교회교육의 발전과 함께, 특별히 교회학교(유년주일학교)의 발전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데,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 주일학교와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1) 정일용, “기독교교육학 강의안”. 총신대학교 출판부(2001), p. 2

수 없을 만큼, 주일학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교회사를 살펴볼 때, 교회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주일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음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 주일학교도 함께 일어난 것이다.²⁾ 따라서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엔, 이 주일학교가 늘 함께 하고 있었으며, 이 주일학교를 생각하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한국교회의 기형화 현상을 많이 낳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업화, 대형화, 세속화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한국교회가 낳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참된 복음의 상실과 복음의 피상화현상이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가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과 수적인 성장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낳고 만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는 고스란히 주일학교에도 전해져,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는 숫자적인 급속한 감소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병폐들을 함께 낳게 된 것이다. 더욱이 주일학교는 장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외면당하면서 그 질적인 영적 빈곤 현상이 더 급격하게 심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오늘날 세속에 물들고, 세상정신에 물든 한국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여러 단체 중 하나와 같이 전략해 버린 것처럼, 오늘날 성장과 성공위주의 교육에 치중해 온 교회 안의 주일학교 또한, 이제 더 이상 전 인격적인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신앙의 전초기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아이들의 놀이 문화 공간 내지는 교회의 관심에서 멀리 있는 교회 안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략해 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교육, 혹은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성경의 표현들과 인본주의 심리학을 적절히 섞어 놓은 경건하지 못한 혼합물이나 종교적인 껍질을 씌어놓은 행동주의에 불과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에 주일학교 교육의 위기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³⁾ 이에 필자는 한국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진단과 고찰을 통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회복해야할 문제는 어떤 것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김폴린. "한국기독교 교육의 역사". 1992. p75

3) 존 맥아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키우기" 2001. p23

제2장: 본 론

Ⅰ. 용어의 정의

주일학교 교육이란 기독교교육에서 신앙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교육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명칭은, 명백히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온 여러 용어들에 의해 많은 오해와 혼란을 빚어 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 혼란의 초점이 되어 온 용어들은 “기독교 교육”, “종교교육”, “교회교육”, “주일학교”, “교회학교” 등이며, 이러한 용어들은 서로간의 한계적 관련성이 규명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다. 4)

본 발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일학교라는 용어는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기독교교육 전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일학교는 장년부를 포함하는 청년부와 고등부, 중등부, 소년, 유년 유치 유아부까지의 교회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교회교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주일학교라는 명칭은 18세기 영국에서 로버트레이크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하나의 기독교 사회교육의 이름으로, 이것이 점차 교회 안으로 수용되어 “교회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설립한 교회의 어린이 교육기관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이 주일학교의 용어의 한계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아부터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교육의 형태의 한계 안에 두고자 한다.

Ⅱ.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

주일학교는 그 연원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일환으로, 모든 기도교역사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일학교에 대해 요한웨슬레는 말하기를 “자라나는 세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현재의 종교부흥은 다만 현 시대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으며, 또, 1900년대 초기 대영제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조지는 “개인적으로 나는 주일학교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고 있다. 내가 받았던 최선의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년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한다. “벽돌위에 당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할 때, 당신은 벽돌을 굵기 전에 쓰겠는가? 아니면, 구운 후에 쓰겠는가?” 이처럼, 어린 시절의 교육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p119

1. 성경의 명령으로서의 중요성

자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성경 전반에 걸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교회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자녀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 모세로부터 들은 세편의 설교를 말한다. 이제 이들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일만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미래는 가나안 땅에서 자라게 될 어린세대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명기는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역이 될 어린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교회와 부모된 자들에게 그 책임과 사명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과 명령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화란 개혁주의 혼인 예식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세우신 이유를 결혼한 부부가 주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끌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엘비키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가지는 세 가지 직임인 선지자로서의 역할과⁵⁾ 제사장으로서의 역할⁶⁾ 그리고 왕⁷⁾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2. 말씀교육의 제한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교육적 환경은, 거의가 세속적 사상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으로 인본주의와 실리주의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큰 장이 되어야 할 가정과 부모가, 이 일을 등한시하고 있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일학교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경은 끊임 없이 가정의 중요성과 함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다. 즉, 가정과 부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자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

5) 조엘비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양육” 2012, p117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처럼 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역자(또는 종)와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목회자)는 서로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가정에서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부모와 성경이 언급하는 선지자직과 사도직과 목회적 직임은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알면, 여자가 가정에서 ‘사역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교회의 공중예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Ibid, p 120 우리는 가정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종이요, 대리자로서의 직무를 다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해야한다.

7) Ibid, p 121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 역할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직임을 부모에게 맡기셨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존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너로 잘 양육하고 자라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오늘날 세속에 물들고 세속주의에 밀려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큰 영적인 장으로서의 가정의 회복과 함께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그 만큼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주일학교는 교회의 기초적인 근거가 된다.

대체로 교회구성원들 중에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한 통계를 보면, 개신교 거의 모든 교파에서 교인의 75%이상이 주일학교를 거친 사람들이며, 교회 지도자의 85%,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들의 95%가 주일학교 출신인 것이다. 이 말은 어린 시절, 한번 형성된 신앙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이 말을 다시 역으로 하면, 그 만큼 나이가 들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것이며, 한 교회 아니 더 나아가 조국 교회와 기독교의 미래 또한, 현재 주일학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III. 교회교육의 역사적 고찰

1.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교육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온갖 박해와 시련을 겪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대인은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은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자녀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시편 127편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민족의 재산이자, 민족의 번영의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한 유대인은 세 살이 되면, 토라와 탈무드⁸⁾를 공부하기 시작한다.⁹⁾

히브리교육의 중심은 쉘마교육이었는데, 이 쉘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6의 의 본문에 나타난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쉘마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절대적 순종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곧 신앙교육의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육철학의 지표가 되었다. 이 쉘마교육의 특징은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양식이자, 정신적 철학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전승을 위한 교육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8) 탈무드는 역사적으로 수만명의 지혜자와 랍비들이 토론한 과정과 결론을 엮은 계율서이자 성전이다. 이 책은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후 500년까지 약 1,000여년에 걸쳐 250만 단어가 넘는 방대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성경의 율법과 유대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대해서도 골고루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랍비들은 자유롭게 인간 생활의 모든 핵심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탈무드는 천문학, 해부학, 보건위생, 과학을 비롯하여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분야의 법률이나 윤리 생활까지도 다루고 있음으로 백과사전과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9) 빅터 솔로몬, “웃을 팔아 책을 사라” 현용수 역, pp179-180

삶의 교육으로,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교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보기로서의 현장교육이요, 삶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히브리 민족의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 되는 긴 세월동안 히브리 민족의 교육의 최 정점은 언제나 가정이었던 것이다. 이른바 학교교육은 없었지만, 생활의 한복판에서 늘 교육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또한 아주 다양했다. 부모, 예언자, 제사장, 현자, 시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부모는 자녀들의 최초의 교사이자, 최후의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¹¹⁾ 가나안 정착 시대의 자녀교육을 보면, 사무엘의 예로 보아 성전에 맞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 안에서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중심의 교육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 있다.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시대를 치르고 난 히브리민족은 교육상 중요한 변혁과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회당과 학교라는 두 조직을 이용한 교육이었다는 것이다. 회당이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예배를 주축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이 된 것이다. 회당에서는 기도, 성경 낭독, 그리고 일상용어로 행하는 성경해석들이 다루어졌는데, 여기서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원형을 볼 수 있다. 회당교육의 학습 내용은 율법의 계율들을 축자적으로 암송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 시대를 전후해 있었던 이 회당교육이야말로 최초의 국민의무교육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교육적 자각이 조직화되어 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모형을 회당으로 보고 있다. ¹²⁾

그 다음으로 학교교육의 시작과 발전이다. 학교교육은 회당교육이 진행되어 오다가 회당과 병립된 건물과 제도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학교교육 조직은 기원전 75-70년에 와서야 로마의 영향을 받아 비로서 완전히 발달되었다. 모든 어린이들은 강제적인 출석을 원칙으로 했으며, 나중에 취학 연령이 6-7세로 정해졌다. 이스라엘이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의무 이상의 일이었다. 이것은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벤 핫세퍼, 즉 성경의 집이다. 남자 어린이만을 6세부터 받았으며, 히브리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주로 가르쳤다. 두 번째 단계는 벤 탈무드의 단계로, 중등교육과정이다. 가정이나 벤 핫세퍼에서 배운 율법에 정통하려는 사람을 위한 진보된 교육기관으로 주로 율법에 대한 해석을 공부했다. 세 번째 단계로 오늘날 고등교육의 전문 과정에 해당

10) 정일웅. "기독교교육학 강의안". 1998. p200

11) 류재하. "서울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개론". 1994 p70

12) 은준관외 4인 공저. "기독교 교육론". 1984 p28

하는 것으로 벤 탈무드의 연장선에서 주로 율법의 고등한 해석과 연구를 주로했다. 이것을 주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웠다.¹³⁾ 이렇게 세 학교에서 가르친 교사들을 학교의 종류에 따라, 최상의 교사를 현자, 교사를 학자, 서기관 그리고 아래의 교사를 선생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통틀어 랍비, 혹은 율법사라고 불렀다.

2. 초대교회의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학자 이비는 초대교회의 교육을 사도시대의 교육으로부터 A.D 401년에 있던 칼타코 종교회의까지 연장시켜 초기 기독교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선교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이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기본적 성격은 케리그마, 즉 선포하는 교회였다.¹⁴⁾ 초대교회는 거룩한 새 백성이 된 자로서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참된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대한 가르침들로 교회교육이 확대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서, 유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유년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책임을 쏟게 되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자각은 교회와 가정이 이 교육을 전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교육을 받던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기독교교육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고, 기독교 박해 속에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던 성도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대교회 초기부터 후기 시대에 거쳐서 발전되어 온 기독교교육의 주된 내용은 교리적인 성격을 띤 케리그마와 도덕, 교훈적인 성격을 띤 디다케이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후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고, 교육의 중심 내용은 문답교육, 입문자교육, 교리문답교육 등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¹⁵⁾

3. 중세의 신앙교육

중세의 교육은 대체로 4-5세기경부터 발전되어 온 두 가지 종류의 예배 형태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진다. 그것은 바로 ‘미사 카테큐메노룸’과 ‘미사 피델리움’이란 것이다. 전자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새 신자들을 위한 교육 형태이고, 후자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을 중심으로 행하는 예배를 가리킨다. 두 예배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면, 전자는 성찬이 베풀어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교훈을 받는 말씀중심의 예배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에 놓여 있는 중세교회의 정규예배라 하겠다. 따라서 중세시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르

13) 황성국. “한국 주일학교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일반적 고찰”. 2000 p15

14) Eavey, C.B “ 기독교 교육원리” 박영호 역. 1984. p48

15) 황성국. “한국 주일학교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일반적 고찰”. 2000 p17

치는 교육이었으며, 이후 내용이 계속해서 첨가되어 13세기경부터는 십계명과 세례와 성찬 등이 교육되었다. 이러한 것은 대체로 중세 카톨릭신학의 대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이라고 했다. 이러한 중세 교리교육은 일차적으로는 교회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었지만, 어린이의 신앙교육은 역시 가정의 부모들에게 가장 큰 책임과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교리교육 외에, 중세시대에는 수도원학교나 분당학교, 사원학교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수도사의 수양을 위해서나, 혹은 교역자 양성을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육기관이었다. 16)

4. 종교개혁시대의 신앙교육

16세기 일어난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대변혁 운동일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전제 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왜곡시켜버렸다. 이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러한 구원의 가르침으로부터 파생되는 교회의 모든 잘못 된 모습을 95개 조항으로 표현하여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의 사상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는데, 그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공헌은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되게 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했다고 하겠다.17)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기독교신앙교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두 가지 경우라고 할 것이다. 첫째는 독일어 성경번역에 있었다. 루터에게 있어, 성경은 기독교신앙의 진리의 가르침을 위한 최종적인 권위였다. 따라서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은 것이다. 둘째로 요리문답교육의 새로운 창안이다. 루터는 요리문답서, 대. 소를 만들었는데 그 직접적인 동기는 멜랑히톤과 함께 시골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신앙의 무지를 보고 이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 요리문답서는 그때까지 구전에 의해서만 가르쳐 왔던 기독교신앙의 가르침을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했다는데, 큰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 요리문답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교리들을 문답형식으로 엮어 만든 최초의 요리문답서이다.

이러한 요리문답을 통한 교리교육은 이후, 여러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가장

16) 정일용. "기독교교육학 강의안". 1998. pp214-215

17) 황성국. "한국 주일학교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일반적 고찰". 2000 pp18-19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칼빈이다. 칼빈은 제네바 사역당시 두 차례의 요리문답서를 만들어 펴 냈다. 첫 번째 요리문답서는 루터의 것을 따라 만들었으나, 그 후 두 번째로 만든 요리문답서는 독자적으로 펴 낸 것으로, 이후 하이델베르그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를 만드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치게 한다. 칼빈은 요리문답교육을 매우 중하게 여겼는데, 먼저는 교회의 청소년들과 성인 초신자들이 배워야 할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매 주일 오후에 모이는 성인 중심의 예배에서 이 요리문답을 설교하였으며, 이후 모든 개혁교회가 자신의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러한 종교개혁시대의 교리교육의 목표는 신앙의 무지를 일깨워 주고,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신앙적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었다.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항상 내세웠으며,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리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힘을 다하였던 것이다. 18)

5. 근대의 기독교교육

종교개혁과 산업혁명으로 집약되는 근세시대는 30년 전쟁(1618-1648)을 거치며, 로마 카톨릭의 붕괴와 정통적인 봉건사회제도의 붕괴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요구는 당시 새로운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거결되는 합리주의사상, 즉 인간의 이성의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근세기를 지배한 사상은 중세기 신비주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계몽주의 사상으로 이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는 하락하고, 교회의 주도하에 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세속의 세력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전환하게 된다. 특별히, 교회의 주도 아래 있던 교육도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만 교회의 영역 안에 한정 지워지게 되고, 일반교육과 사회교육은 세상의 정치 영역 안으로 편입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발전과 18세기 산업혁명의 발전의 결과로 발전한 근세교육의 사상적 조류는 경건주의와 계몽주의, 그리고 합리주의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상적 조류가 근세기의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겠다. 17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교육 사상가로써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1592-1670)를 들 수 있다. 그는 근세기의 전환기에서 마지막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 사상에 기초한 인간론을 제창한 최초의 신학자요, 교육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 근대의 주일학교 역사(영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1. 영국의 주일학교

근대 주일학교운동의 시작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존 웨슬레가

18) 정일용, “기독교교육학 강의안”, 1998, pp217-218

1737년 조지아에 서너배에서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와 요리문답을 가르쳤던 학교이고, 두 번째는 한나벨이 1769년 영국하이 와이콤에서 아이들을 일요일과 월요일에 모아 가르쳤던 학교, 그리고 세 번째는 죠셉벨리미박사가 1740년 코네티컷주의 베들레헴에서 안식일에 회중 청소년들에게 요리문답과 성경암송을 가르쳤던 학교,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임스 그리밍목사의 부인이 1744년 필라델피아에서 이웃의 아이들을 모아 종교교육을 받도록 한 학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펜실바니아의 에프라타에서 1739년 독일 침례교도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한 모임에서 생활고로 주간 동안 일을 하러 다니느라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한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종교교육은 물론 일반교육을 베풀어 주기 위해 조직한 학교등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일학교로 불리는 기독교교육은 일반적으로 1780년 영국의 글로체스터에서 로버트레이크스가 처음으로 빈민학교를 세우면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19)

로버트 레이크스는 영국의 글로체스터시에 살던 인물로, 본래 그는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신문을 편집하는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교도소의 죄수를 인간적으로 돌보며, 양심을 되돌리고 안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 교도소의 개혁자요, 영국의 사회개혁을 부르짖던 사회개혁자였다.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때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때였다. 따라서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들은 값싼 노동을 찾으려 했으며, 이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수 많은 어린노동자들이 도시 빈민가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때, 로버트 레이크스는 자신의 집에 어린 노동자들을 불러 모았고, 일요일에 주일학교를 개설하여, 문자를 가르치는 일에서 시작하여 성경과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하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그 당시 교회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지만,²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과 성원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주일학교 교육은 새로운 기독교 교육운동으로 영국교회 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미국까지 전해져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주일학교 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폭스이다. 그는 런던의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평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복사판 성경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

19) 이대일. “로버트레이크스의 주일학교운동” 1994. p16

20)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의 유용성에 대해 질문해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의 위험성과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악마의 표징이라고까지 악평하였다. 켄터베리대주교는 주일학교에 대하여 “무신론적이고 불순한 학교들이 나라안에 창궐하고 있다. 자선학교 및 주일학교의 형태로 분장을 한 학교에서 가장 저급한 계층 출신 아이들의 정신이 깨어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운동을 중단시키는 모의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윌리엄피트는 의회로부터 주일학교를 금지시키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주일에 평신도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알고, 21) 글을 가르치는 협회를 창설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는 레이크스의 주일학교 소식을 접하게 되어, 1785년 영국 전역에 주일학교의 설립을 돕고, 여기에 필요한 교재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보수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런던에 ‘주일학교협회’를 창설하기까지 한다. 이 협회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기부금을 헌납했는데, 특별히 국왕인 조지 3세의 부인이었던 샬럿여왕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기부금을 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협회의 발전으로, 협회는 이후 27년간 2,500개 이상의 주일학교를 도왔으며, 영국의 웨일즈와 주일학교의 교사들에게 보수를 지불하였고, 25만권의 교재와 5만권이 넘는 시약, 그리고 7,000권 이상의 성경을 기증하였다. 22)

이러한 로버트 레이크스의 주일학교 운동은 기독교 교육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내용면에 있어서 얼마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일학교가 바로 레이크스의 주일학교를 원형으로 그 전체적인 틀을 제공받은 것이다.

2. 한국의 주일학교

한국에 와서 활동하였던 선교사들은 여러 방면에서 한국의 개화와 계몽에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구한말 선교의 자유를 허락받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 그리고 문서운동과 한글의 보급, 그리고 청년운동과 같은 활동을 먼저 시작함으로써 선교의 터를 닦고자 하였다. 이러한 활동 중에 교육활동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하겠다. 의료사업이나 문서운동, 그리고 청년운동은 피선교지인 한국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던 부분이라 한다면, 교육활동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더욱이 주일학교의 부흥과 발전은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이러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육활동에 힘쓴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실제로 1884년 개신교가 한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은 다음 해인 1885년 아펜젤러가 근대식교육을 시작했고, 곧 이어 1886년에 고종황제로부터 정식으로 학교 설립허가를 받아 배재학당을 시작한 이래 1909년에는 전국에 950여개의 기독교 학교를 헤아리게 된다.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한 선교의 노력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기독교 학교와 같은 공식기관을 통한 교육과, 다른 하나는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의 형태를 통해 일으킨 교육이다. 23)

21) 18세기 영국의 600만 인구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겨우 8만명에 불과하였다.

22) 이대일. “로버트레이크스의 주일학교운동” 1994. pp21-22

23) 김영재. “한국교회사” 1992. p72

1) 주일학교의 시작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은 동시에 주일학교를 함께 발족하였다. 정확한 주일학교의 시작에 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다. 처음에는 ‘소학회’라 했고, 그 후에는 ‘주일학교’라 하여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누어 주로 성경공부에 치중하였으며, 유년주일학교가 정식으로 조직된 것은 1890년경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²⁴⁾ 그런가 하면 1888년 1월 15일 서울 정도 이화학당에서 처음으로 12명의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학교라는 주장이 있다. ²⁵⁾

2) 주일학교의 조직과 발전

초기의 주일학교는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명칭은 유년주일학교라 했다. 이 유년주일학교는 25세 이상의 장년들로 구성된 장년주일학교와 구별된 것으로 1987년 당시 이미 평양에 5개의 주일학교가 있었다. 유년주일학교는 다시 중등반 학생이 주축된 소년회와 고등반 학생과 청년이 주축이 된 청년회가 자기 독립적인 자치조직으로 활동하였다. 1905년에는 ‘선교연합공의회’내에 ‘주일학교공과위원회’를 선교사 중심으로 결성하여 조직적인 기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에는 처음으로 주일학교용 통일공과인 ‘주일학교공과’를 편집하였는데, 이것은 세계통일공과를 미국에서 사용한 것보다 한 해 늦게 편찬한 것이다. 1911년에 이르러서는 주일학교 위원회가 확충되어 ‘종교교육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 임원으로는 네 개의 장로교 선교부에서 각 한명씩, 두 개의 감리교 선교부에서 각 한명씩, 그리고 조선 예수교서회에서 한명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 브라운과 해밀턴이 세계 주일학교 연회를 대표하여 한국의 주일학교 사업을 돕고자 방한함을 계기로 1908년 5월 19일 서울 경복궁에서 언더우드목사의 사회로 주일학교대회가 열렸는데, 참가 인원이 14,700명이나 되었다.

1922년에 이르러서는 주일학교 기구가 개편되어 13인의 위원을 대신하여 10개교단의 대표 17인으로 구성된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13년간 주일학교 교육사업은 큰 활력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1920년 배위량목사의 지도하에 일어난 주일학교 촉진운동은 주목할만한 결과를 낳았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친 주일학교의 수가 당년에 10,000개에서 14,000개로 증가되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²⁶⁾ 이후 평양 선천에서 마포삼열선교사 부인에 의해 한국최초의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으며, 그후 급속히 전국 주일학교에 퍼져 1930년에는 36,239명의 아동이, 그리고 1934년에는 12,8926명의 아동이 여름성

24) 송낙원. “기독교회사”. 1961 p536

25) 이만열. “한국기독교 문화 운동사” 1987. p253

26) 이때의 상황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교회별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도와 출석과 헌금을 기준으로 하여, 1,000점의 점수를 주어 평가하였던바 이 방법이 크게 성공하여 전국의 주일학교가 모두 이 방법을 채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학교에 참석하였다.

Ⅳ.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진단

1. 감소현상

주일학교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가장 확연한 것은 숫자적 감소에 있다. 한국의 주일학교는 90년대 이후, 장년층의 숫자적 감소와 맞물려 매년 평균 3%에 가까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추세는 장년층의 감소 추세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이는 절대인구의 감소에 의한 주일학교 이동의 수의 감소가 첫 번째 원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절대인구의 감소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감소추세가 너무나 심각한 것으로 교회의 무관심과 교육의 정책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제시의 문제등 총체적인 문제가 낳은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복음제시의 미약

오늘날 주일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제시의 미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각 교회들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고, 시설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들이 정작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복음제시의 문제에는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린이들을 교회에 잡아두기 위해, 교회 바깥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주일학교에 도입을 한다. 그리고 상품권과 같은 선물공세로 어린이들을 유혹하여 교회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잠시 뿐, 어린이들은 얼마가지 않아 시설과 프로그램에 실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무엇보다 나쁜 것은, 아이들이 점차로 교회를 이렇게 세속적인 곳으로, 선물을 주고, 놀러가는 곳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흥미와 가치가 떨어지면, 흥미를 잃은 오락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듯 부모와 어린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27)

우유를 곁들인 샌드위치를 맛있게 들고 나자 이미 공과시간은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공부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지난 주에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자!”

대 여섯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있었던 일, 즉, 친구들과 사이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부터 시작해서 인기 배우 팬클럽에 갔던 일까지 모두 나누고 나니 한 시간 반 가까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성경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교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두 손잡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분반공부를 마치자. 공과는 다음 주에 두과 한 번에 하기로 하고”....또, 어떤 반은 분반 공부로

27) 황성국. “한국 주일학교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일반적 고찰”. 2,000 p29

모이자 마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 그 중 한 아이가 기쁨으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분반 공부는 웨디스햄버거, 치킨과 함께 실시한다.....야호!!!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교사들이 예수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8)

3. 인식의 부족

장신대 박상진교수는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와 교육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목회자들이 목회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건물을 지을 때도 교육관 중심이 아닌, 본당중심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한, 교육부서의 교역자들이 대부분, 교육목사나 신학교에 재학 중인 전도사들로 구성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나 시설의 문제에 있어 주일학교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 성인들이 사용하던 장소와 성인들이 사용하던 장의자를 물려받는 것이 다반사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일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와 프로그램의 부재, 그리고 교육철학의 부재를 불러와 주일학교의 총체적인 질적 저하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호 목사는 당회의 인식의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즉, 당회는 교회의 거의 모든 전권을 쥐고 있는 기관이므로 당회가 주일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면 주일학교의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

4. 인간 이해에 대한 잘못된 교육접근

한국주일학교의 교육자들이 갖는 가장 흔한 인간이해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은 인간이 출생한 이후에 습득 된 반복된 경험에 의해 반응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에는 스키너와 왓슨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잠재력이 있음을 부인한다. 인간은 내부적인 힘이 아닌 외부적인 자극에 따라 반응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주의적 접근은 주일학교교육을 경쟁과 비교를 통한 자극의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키는 비인간화의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성경적인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또 이러한 행동주의의 반대의 극단으로 낭만주의적, 혹은 자연주의적 인간이해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은 인간 내부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대로

28) 김남준. “교사리바이벌” 1999. pp116-117

29) 김동호. “당회가 변해야 주일학교가 산다.” . 빛과소금. 1996 p43

내어버려두어야 잘 자랄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실현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곧 인간의 심원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가능성의 원천으로 이해되며, 또한 이 힘이 잘 조절되고, 승화된 것이 인간의 성숙한 사회적 행동의 표출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낭만주의 학자들로는 루소에서 페스탈로찌, 몬테소리와 스포우크와 같은 학자들이 있다. 30)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간과한 부분적인 이해라는 점에서 또, 한 사람의 성장에 있어 외부적인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과한 점에서 비성경적이며,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5. 교사 양성과 자질에 관한 문제

매년 실시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가 매년 1위를 하고 있다. 핀란드는 1980년대까지 평균적인 교육수준에 머무르던 나라였다.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나라도 아니다. 그런데,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의 이유가 무엇인가? 헬싱키의 아라비아 종합학교 총장에게 그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사 때문이고, 둘째도 교사 때문이고, 셋째 역시 교사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선별과 투자를 했다 그랬더니 교육이 바뀌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교회의 교육환경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설이나 환경이 주일학교 교육에서 교사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좋지 못한 교육환경에서도 영적인 거목들은 얼마든지 배출되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한 개인에게 부흥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한 개인의 마음으로 무리를 변화시키고, 한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즉, 주일학교의 모든 부흥의 열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한 명의 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왜 조국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바로 사명감을 잃은 목사와 지도자들 때문이다. 과거에는 조금 공부 못하고,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매인 목회자들이 생명을 걸고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머리만 커진 목회자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한 마디로 학벌지상주의가 목회를 메마르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이 교역자로서, 혹은 교사로서의 부르심의 가장 큰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1)

30) 김삼복. “기독교 교육개론”. 서울 신학대학교 기독교 연구소편, 기독교심리. 1994 p58

31) 김남준. “교사리바이벌” 1999. pp53-55

6. 부모와의 단절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가정에 있음을 말씀한다. 그리고 그 중 일부를 교회 학교에 위탁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안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교회의 직분자이면서도 학업을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삶을 가르치지만,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V. 참된교회와 주일학교

1. 명확한 복음제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선포에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교육의 가장 핵심 또한 복음선포에 있다. 왜냐하면, 영혼구원은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목할 만한 시설과 기자재가 동원된다 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복음선포에서만 비롯되는 것이다. ³²⁾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담당자이자, 복음선포의 책임자인 교역자와 교사가 먼저,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영적체험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적세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복음선포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방법이 복음적인 사실로 제시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구원의 초청이 담겨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³³⁾

2. 교리를 가르치라

종교개혁시대 이후로 신자들에게 기독교신앙의 핵심과 신자로서의 삶의 윤리적인 지침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었다. 그들에게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교리였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리였으며,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리였던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철저하게 교리를

32) 서철원. "복음적설교". 1995.p15

33) 김남준.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2004. p169

가르치지 않으면, 이후 그들의 신앙은 신뢰할 수 없는 종교적인 경험에 그치기 쉽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토록 중요한 교리를 왜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이 세 가지를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태의 연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시대를 따라잡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그 만큼, 오늘날의 신자들이 교리에 대한 체험의 부재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자체가 진리가 아닌 종교적 문화와 체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리에 대한 분명한 영적 체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철저한 삶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을 준다. 세뇌된 교리주의자가 아니라,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야만 신앙의 거대한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 도구를 통하여 인간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이 교리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역자와 교사의 자질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하겠다. ³⁴⁾

이러한 교리교육을 위해, 종교개혁자들은 교리문답식교육의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교리문답식 교육은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 거의 사라진 교육방식이다. 존 머레이는 이와 같은 현상에 관해, “현대 기독교의 심각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리적 무지와 혼란과 불안정성은 대부분 교리문답식 전통이 단절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성경공부 방식이 난무한 오늘날의 교회교육방식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교리문답식교육의 회복이 절실한 때임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청교도들은 이러한 교리문답 교사의 훌륭한 모델들이었는데, 그들은 강단의 메시지가 교리문답이라는 개별적 사역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은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정예배 외에 매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자녀들에게 교리들을 문답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그들의 가정의 교육원칙으로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교리문답 교육과 관련하여 조엘비키박사는 몇 가지 조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녀들에게 교리문답교육을 하라. 어린자녀들에게 30분이면 충분하고, 관심을 보이는 십대 자녀들이라면 45-60분이 적당하다. 교회에서 교리문답을 받고 있지 않다면, 더 자주 교리문답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건전한 교리문

34) 김남준. “교사리바이벌” 1999. pp240-242

답서를 숙지하고 배우라. 예를 들어 나이가 든 자녀들에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혹은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리문답을 토대로 작성된 다른 교리문답서를 활용할 수 있다. 존 브라운이나 매튜헨리의 교리문답이 이에 포함된다. 아니면 도서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는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두루 해당되며, 다음과 같다.

1. 초등 1학년: 성경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캔리 맥켄지)
2. 초등 2-3학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다이애나 클레인/조엘비키)
3. 초등 4-5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교리, A권과 B권(제임스 비키)
4. 초등6-중등1학년: 중학생들을 위한 성경교리, A권과 B권(제임스 비키)
5. 중등2-고등3학년: 십대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교리 1.2.3권(제임스비키) ³⁵⁾

3. 교사교육의 강화

한국의 주일학교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가 그들의 헌신과 열정만을 높이 생각했지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교사교육에는 열의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는 교사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각 교사들을 주일학교 현장으로 내 보내기 전에 반드시 교사훈련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육시키되, 반드시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숙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교사가 기독교의 구원사상에 대하여 확실한 신앙고백이 없이, 또한 그것이 자신의 신앙적 삶의 태도나 삶의 변화 없이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³⁶⁾

4. 가정과의 연계

가정은 하나님이 인류의 삶에 복과 풍요를 내리시고, 자신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며,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허락하신 수단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결혼 생활과 질서 있는 대가족 생활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은 것이다. 특별히, 그들은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결합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징계의 조화된 교육에 열심을 다했다. ³⁷⁾따라서 그들은 가정을 교회와 사회의 유익을 위한 육아원으로 간주해, 가정 안에서 먼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신앙과 인격과 교양을 두루 갖춘 경

35) 조엘비키.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2012. pp69-70
 36) 정일용.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1999. p213
 37) 조엘비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양육” 2013. pp253-254

건한 시민이자, 교회의 충실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힘썼던 것이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 원리가운데 가정을 세워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가정에서의 교육에 대한 원칙들은, 오늘날 신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신앙의 책임을 교회에 돌리는 것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 아니 전인의 회복은 교회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먼저 가정에서의 교육의 회복이 이루어져야하리라 생각한다. 청교도들의 자녀양육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다.

1) 임신 중의 책임

청교도는 태아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녀양육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될 부모의 임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태아의 건강과 안전과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임신한 아내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었다.

2)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

청교도는 갓 태어난 자녀를 돌보는 일에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모유를 수유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모유수유가 유아에게 가장 좋은 영양공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성심을 다 해야 했다.

3) 세례에 관한 언약의 의무

청교도는 세례를 받은 자녀가 유형교회의 일원이 믿는 부모와 하나님과 관계에 바탕을 둔 언약의 자손이라는 확신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세례는 은혜의 가시적 상징이자, 보증이었던 것이다. 자녀가 세례를 받으며, 부모는 언약의 책임에 따라 자녀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심을 가르쳤다.³⁸⁾

청교도에 따르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 자녀를 기르는 청지기였다. 토마스 왓슨은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청교도는 언약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든 자녀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녀들의 개인적인 회심과 성화를 통해, 믿음안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던 것이다. ³⁹⁾

38) 물론 청교도 가운데는 존 번연이나 벤자민 키치 같은 침례교 신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교도는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다.

39) 조엘버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양육” 2013. pp256-257

4)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교육

죄에서 구원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 청교도 교육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한 교육의 토대는 성경이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자녀들에게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즉, 읽기 훈련을 통해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러한 교리교육은 교리문답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교리문답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언약의 자손들이 설교와 성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류에 맞서 믿음을 옹호하는 법을 가르친다.

5) 언약적 양육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가족예배

청교도 가정은 하루 한두 번 가족예배를 드렸다. 1647년에 작성된 ‘가족예배 지침서’는 기도, 찬양, 성경읽기, 기독교의 기본진리교육(교리문답), 영적 대화나 논의로 구성된 가족예배를 권고했다. 청교도는 가족예배를 가정의 의무이자 특권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가족예배는 자녀들의 나이와 아버지의 영적은사에 따라 15분에서 30분 동안 지속되었다. 예배하는 동안 아버지는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그리고 가족들은 시편 찬송을 불렀고, 성경의 진리에 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6) 언약적 양육의 일환으로서의 징계

청교도는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훈계와 징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쳤다. 존 노튼은 말하기를 “교리와 본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징계는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했다. 청교도는 자녀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먼저, 말로 책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 책망이 효력이 없을 때에는 회초리를 들어야만 했다. 이러한 체벌에 대해 가우지는 “체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일을 돕는다. 체벌은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체벌은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징계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징계는 반드시 사랑과 동정심과 기도와 자제력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이와 관해, 윌리엄 퍼킨스는 징계를 너무 가혹하게 정하여 자녀를 노엽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관대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자녀의 악한 성향을 다스리되 기백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7) 인생을 결정할 때 부모의 도움

청교도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적합한 조언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재능과 성향을 깊이 헤아려 어떤 직업이 좋을지를 판단하고 나서 “이 직업들 가운데, 네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아울러 청교도의 부모는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당시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들은 배우자와 관련하여 크게 다섯 가지 질문을 생각했다고 한다.

- 배우자가 될 상대방이 나의 자녀와 결혼하여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 배우자가 될 상대방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는가?
- 배우자가 될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배우자가 될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 수준이 내 자녀와 어울리는가?
- 배우자가 될 사람과 내 자녀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⁴⁰⁾

제3장: 결 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총체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또한 가정에서조차 우리 자녀들을 전인격적으로 키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는 임시위주의 교육으로 편재되어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니, 사회성이니, 영성이니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교회 또한, 세속과 성공주의에 물든 거짓된 복음의 영향 아래 세상의 문화와 저속한 놀거리를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떠한가? 가정 또한, 세속과 실용주의의 영향아래 그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바른 교육적 책임과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도 아니요, 모두가 함께 책임지며, 고민해야 할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다. 특별히, 본 주제의 주일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일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먼저, 가정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조엘비키 박사가 말하는 주일학교 교육의 몇 가지 원칙들을 함께 살펴 본 후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40) 조엘비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양육” 2013. pp259-261

■ 조엘비키 목사가 제시하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의 원칙들 ■

1. 어린이들을 포함시켜라

성경은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모인 자리를 교회라고 일컫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이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천국의 축소판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증언들을 말씀하고 있다.(신31:21, 신12:7, 수8:35, 대하20:13, 마18:2, 19:13-15, 엡6:1-3, 골3:20)

이러한 성경의 증언으로 볼 때, 교회는 어린아이들과 십대 자녀들과 성인들을 따로 분리해서 예배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모아 놓고, 부모들과 함께 앉아 예배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시간을 이용하여 자녀들의 경건훈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사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도할 때도 어린아이들을 염두해 두어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설교할 때도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

2. 어린이들을 참가시켜라.

교회는 어린이들을 교회의 삶에 온전히 참여시켜야 한다. 주일에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러 오고, 주중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부모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참여시키는데 적합한 모임이라면, 되도록 자녀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도모임이나, 교회의 봉사활동같은 모임에 자녀들을 참석시킴으로 교회 가족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어린이들과 대화하라.

교회의 모임은 가족들의 모임처럼, 거룩한 가족이 재회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어른이나 아이들을 불문하고, 모든 신자들은 서로 주 안에서 인사하며,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들의 키 높이에 맞추어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또한, 그들과 대화할 때는 주님을 칭송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말로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41) 조엘비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양육” 2013. pp439-440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42)

4. 어린이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린아이들은 감정과 태도에 대단히 민감하다. 찌푸린 표정이나 경직된 태도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린아이들과 십대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각별한 목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차세대의 주인공들에게 단지 설교를 하고, 한 주에 한 가지씩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스스로 다가와 궁금한 것을 묻고, 염려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을 통해 어린 아이들에게 경건한 삶을 설교해야 한다. 43)

42) Ibid. p442

43) Ibid. pp443-444